

프로야구는 U+로 봅니다
아빠-인능 U+ 프로야구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ONE스토어 / Play스토어 / App Store ▶ U+ 프로야구 검색

돌아온 임기영 KIA 순위싸움 시동건다



지난 2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경기를 통해서 복귀전이자 시즌 첫 등판을 소화한 KIA 임기영은 7개의 안타를 내주면서 4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지만 5이닝을 소화하며 선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안겼다. (KIA 타이거즈 제공)

29일 출격 “점점 좋아지는 중...공격적으로 승부”

4·5선발 출격 2승6패 KIA 선발 고민 해소 기대



임기영이 '호랑이 군단'의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건다. KIA 타이거즈는 시즌 초반 투·타의 잇박자를 보이며 '5할 승률'을 땀 흘리고 있다. 타선의 집중력 난제 속 선발진의 불균형도 고민이었다. 4·5선발이 출격할 8경기에서 KIA의 전적은 2승 6패였다. KIA의 순위 싸움을 위해서는 4·5선발의 힘이 필요하다. 돌아온 임기영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임기영은 지난 시즌 선발 고민에 빠져있던 KIA의 구세주였다. KIA 이적 후 첫 시즌이자 선발로서의 첫해였던 2017시즌, 임기영은 두 번의 완봉승 포함해 8승 6패를 수확했다. 자신의 첫 한국시리즈 무대에서도 승리투수가 되면서 우승 주역으로

명활약했다. 하지만 어깨 부상이 임기영의 2018시즌을 막았다. 재활군에서 시간을 보냈던 임기영은 지난 21일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경기를 통해서 복귀전이자 시즌 첫 등판을 소화했다.

결과와 선발의 성공과 선발의 실패였다. 이 경기에서 임기영은 오재일에게 솔로포를 허용하는 등 두산 타자들에게 7개의 안타를 내주면서 5이닝 4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패전투수는 됐지만 첫 등판에서 5이닝을 소화하면서 선발 역할을 해줬다는 점은 희망적이었다. 부상으로 스프링캠프를 완벽하게 치르지 못한 것을 감안한다면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피칭이었다.

복귀전을 치른 임기영도 “점점 좋아지는 중이다”고 다음 등판을 기대하고 있다. 임기영은 팻턴과 등판 순서를 바꿔 오

는 29일 kt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올 예정이다.

“제구와 직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4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5회에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화가 났다. 볼넷을 안 줬는데 볼넷을 준 게 너무 아쉽고 화가 났다”며 첫 등판을 돌아온 임기영은 “(김민식이) 형하고 이야기했는데 작년처럼 공같이 좋지 않다고 했다. 나도 던지면서 공을 채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훈련하면서 통쾌함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 “캠에서부터 못 던지다 보니까 겁이 떨어졌다.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느낌이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등판에서는 ‘임기영답게’ 자신 있게 공을 던지고 내려올 생각이 없다. 임기영은 “작년에 내가 잘했다고 해서 선발 자리가 내 것이 된 것 같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잘해야 한다”며 “오랜만에 던지면서 생각이 많았다. 이번에는 자신 있게 공격적으로 승부를 하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단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불펜 등판 이민우 “승진했어요”

안타 도둑맞은 이명기 “어우!”

덕아웃 T 특목

▲그럴 수도 있죠. 어우 = 사람들의 갑탄사를 이끌었던 수비에 이명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진 이명기는 지난 25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모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기회를 잡았다. 1-2로 뒤지던 5회말 2사 2루에서 이명기는 좌익수 방면으로 큼직한 타구를 날렸다. 우익수 키를 넘기는 1타점 적시타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순간 그러나 한화 양성우가 전력 질주를 한 뒤 공을 낚아채면서 이닝을 종료시켰다. 26일 훈련 시간에 전날 양성우의 수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명기는 “그럴 수도 있죠”라며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원망 섞인 ‘어우’를 외쳐 사람들을 웃겼다.

▲잘했던 게 아니니까 = 수비 칭찬이 최정우를 춤추게 한다. 최정우는 26일 나지완과 함께 외야에서 수비 훈련을 하며 땀을 흘렸다. 훈련이 끝나고 들어온 최정우는 “원래 수비는 잘했던 선수가 아니니까 타격 잘한다는 것보다 수비 잘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수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는 타석에서도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5일 경기에서도 최정우는 두 타석에서 적시타를 날리며 2타점을 올렸다. 하지만 최근 겁이 좋지 않다는 게 최정우의 이야기다. 전날 경기에서 앞서 일찍 방망이를 들고 나가 갑작스럽게 주력했던 최정우는 “(이)명기가 못 쳐서 언론에서 잠잠한데 나도 요즘 너무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두산 소리만 들렸어요 = 큰 무대가 즐거운 내야수 흥재하다. 흥재호는 부상

으로 빠진 안지환을 대신해 1군 콜업을 받아 지난 주말 잠실 원정에 다녀왔다. 관중석을 가득 채운 팬들의 응원 소리로 가득했던 잠실은 흥재호에게 즐거운 무대가 됐다. 흥재호는 “오랜만에 그런 분위기에서 경기를 해서 재미있었다. 그런데 2루에 있다 보니까 두산 응원 소리 밖에 안 들렸다”며 웃었다.

▲승진했어요 = 이민우가 불펜에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이민우는 올 시즌 선발로 출발했지만 성적이 좋지 못해 불펜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두산전에서 완벽피칭을 선보였던 그는 25일 한화와의 경기에서도 8회초 1-2의 박빙상황에서 출격해 7개의 공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팀이 이어진 공격에서 동점을 만들며 내심 승리투수까지 노릴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추가 점수가 나오지 않았고, 2-2에서 김세현이 등판해 실점을 하면서 2-3 패배로 경기가 끝났다. 이민우는 26일 “어제 등판을 생각하지 못했다. 많은 점수 차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승진했다(웃음).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와서 쉽게 이닝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승환 만루 볼 꺾다

오승환(토론토 블루제이스)이 7회 1사 1·3루에서 등판해 승계 주자를 홈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구원에 성공했다.

오승환은 26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경기에서 3-4로 뒤진 7회초 1사 1·3루에서 마운드에 올랐다.

팀의 3번째 투수로 등판한 오승환은 첫 타자 J.D. 마르티네스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1사 만루의 위기에 몰렸다. 이후 라파엘 데베스를 우익수 깊숙한 뜰공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3루 주자 앤드루 베네티가 타구가 잡히기 전에 태그업했다가 귀루하면서 오승환은 아웃카운트 하나를 더했다. 오승환은 다음 타자 에두아르두 누네스를 초구에 1루수 앞 땅볼로 요리했다. /연합뉴스

부상 기권 정현, 세계랭킹 20위권 밖으로 밀릴 듯

정현(세계랭킹 19위·한국체대)이 발목 부상으로 인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바르셀로나 오픈(총상금 251만900 유로) 출전을 포기했다.

정현은 지난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오픈 단식 2회전에 나갈 예정이었으나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정현은 2회전에서 비운 프래텐젤로(106위·미국)를 상대하게 돼 있었지만 발목 부상 때문에 기권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정현은 8강까지 진출, 랭킹 포인트 100점을 받은 바 있다. 올해 기권으로 2017년 바르셀로나 오픈에서 따낸 점수를 잃게 된 정현은 다음 주 세계

랭킹에서 20위 밖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한편 니시코리 게이(22위·일본)도 2회전에서 기예르모 가르시아 로페스(69위·스페인)에게 1세트를 3-6으로 패한 뒤 오른쪽 손목 통증을 이유로 기권했다.

니시코리는 지난해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세계 랭킹에서 포인트 변화가 없다. 따라서 다음 주 세계 랭킹에서는 니시코리가 정현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는 니시코리가 21위, 정현이 22위 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현은 30일 독일 뮌헨에서 개막하는 BMW 오픈에 출전할 예정이지만 발목 상태에 따라 대회 참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인비 KLPGA 7번 출전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기아차 한국여오픈 등



박인비가 LA 오픈에서 최종합계 10인더파 274타로 공동 2위에 자리해 2015년 10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다시 세계랭킹 1위에 다시 올랐다. /연합뉴스

2년6개월 만에 세계랭킹 1위를 되찾은 ‘골프여제’ 박인비의 경기 모습을 올해 국내에서 7차례나 볼 수 있다.

박인비는 지난 24일 한국여자골프(KLPGA)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KLPGA투어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해마다 빠지지 않는 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와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 올해도 출전할 예정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UL 인터내셔널 크라운과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이벤트 대회인 박인비 인비타이서 날까지 합치면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 출전은 모두 7차례에 이른다.

세계랭킹 1위의 명품 샷을 국내에서 이렇게 자주 보는 호사를 누리기란 사실 쉽지 않다.

박인비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KLPGA투어 대회에 19차례밖에 출전하지 않았다. 2차례는 KLPGA투어가 아시아 여자프로골프투어와 공동 주관해 대만에서 열린 대회였기에 사실상 17차례 뿐이다.

박인비의 국내 대회 출전이 많아진 건 작년부터다. 국내 대회 날들이 많아진 건 국민 성원에 보답하려는 마음에서다.

박인비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올림픽 때 보내준 국민의 뜨거운 응원에 감동했다. 가능하면 자주 한

국내에서 경기를 하는 게 그런 성원에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후원사 주최 대회인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와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 추가한 2개 대회는 박인비가 직접 골랐다.

한국여자오픈은 내셔널타이틀 대회라는 상징성과 무게감을 고려했다. 미국의 간판 대회인 US여자오픈과 영국의 내셔널타이틀 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을 모두 제패한 박인비로서는 한국여자오픈 출전은 의미가 크다.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은 지난해 결승에서 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대회다. 박인비는 또 매치플레이 방식 대회를 즐기는 편이다.

출전 회수만 늘린 게 아니다.

박인비는 KLPGA투어 대회에서 준우승한 6번 했을 뿐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빠른 일정이거나 체력이 떨어진 시즌 막판 주운 날씨 속에 경기에 나서는 등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국내 대회에 출전했던 박인비는 올해는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짰다.

두산 매치플레이 때는 일주일 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국여자오픈 역시 일주일 전에 와서 충분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예 LPGA투어 대회를 2주 연속 빠지게 했다. KLPGA 투어 대회 우승이라는 숙제를 올리는 쪽 풀겠다는 박인비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연합뉴스